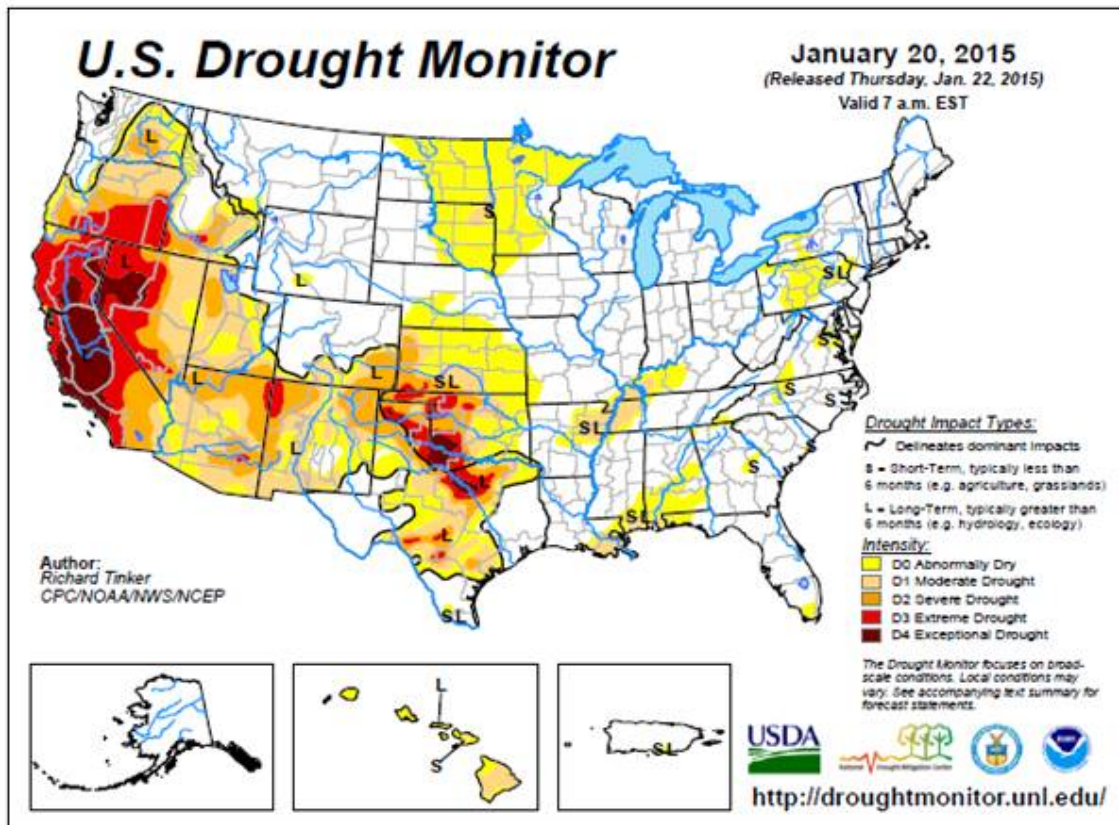


1월 27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2, No. 4)

□ 미국 기후 현황(1/18~1/24)



강수량은 다시 캘리포니아 지역을 우회하였으며, 반감지 않은 건조한 날씨의 확산은 5주째 이어졌다. 높은 고도에 위치한 시에라네바다의 스노우 팩 평균 수분함량은 4인치 정도였고, 1월 말 기준 평년대비 1/4 수준이었다. 건조한 날씨가 서부지역에 팽배하였으며, 예외적으로 태평양 북서부에서 북부 록키산맥에서는 소량의 비가 내리거나 남부 록키산맥에서는 일부 눈이 내렸다. 대체로 건조한 패턴은 북부와 중부 대평원, 중남부 및 중서부 지역으로 확산되었으며, 따뜻한 날씨를 동반하였다. 사실상, 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한 따뜻한 날씨는 이번 겨울 두 번째로 발생하였으며 전국으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주간 기온은 북부와 중부 대평원, 중서부 대부분 지역의 경우 평년대비 평균 10-20°F가 높았다. 북부와 중부 대평원지역에서는 따뜻한 날씨가 가을말의 보호적 스노우 커버를 녹였다. 그러나 평년과 비슷한 날씨가 동부지역에서는 지속되었다. 주 중·후반에 발생한 폭풍전선은 록키산맥 남부지역과 고원평야 지대에 발생하였다. 주 중·후반 발생한 폭풍으로 인해 남부와 동부지역에서는 많은 지역에 비가 내렸으며, 일시적으로 가축들의 스트레스가

증가하였지만 가을밀에는 충분히 효과적인 수분을 공급해 주었다. 이후, 많은 양의 비(적어도 1-3인치)가 남부와 중부, 동부 텍사스 지역에서 남부 대서양 연안까지 내렸으나, 플로리다 주는 예외였다. 주말에 내린 비(진눈깨비와 눈을 포함) 대서양 연안을 따라 북부지역으로 확산되었다.

#### □ 농업 현황 요약(1/19~1/25)

한 주 동안 전국 강수량은 평년대비 비슷한 수준이었다. 태평양 연안지역에서 예외적인 현상이 하나 발생하였는데, 한 주간 비가 내리지 않아 평년보다 2인치 가량 낮은 강수량을 기록한 것이다. 다른 주요 예외지역은 걸프 연안,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텍사스 지역으로 한 주간 4인치 이상의 비가 내린 것으로 기록되었다. 또한, 미국 전역에서는 평년대비 높은 기온이 지배적이었으며, 북부 대평원 지역에서는 평년대비 15°F 이상 높았다.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뉴욕, 텍사스 등의 지역에서는 온난한 날씨가 발생하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평균 기온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세계 기후 현황(1/18~1/24)

■ 유럽: 비가 내려 대륙 전반적으로 겨울 작물에 필요한 충분한 수분 보유량을 유지시켰고, 서부 재배지역에서는 더욱 추운 날씨가 형성된 반면에 동부 지역에서는 계절에 맞지 않는 따뜻한 날씨가 나타났다. 남쪽지역으로 뚜렷하게 제트기류가 형성되어 북부 독일에서부터 영국, 이베리아 반도까지 추운 날씨(평년대비 1-5°C가 낮음)를 몰고 왔다. 계절적으로 추운 날씨는 겨울 작물들이 계절에 맞지 않는 따뜻한 날씨가 확장된 기간 이후 다시 동면상태에 진입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비록 일부 많은 양의 비(10-50mm)가 내려 스페인과 북서부 이탈리아 지역에서 재배중인 가을밀과 보리에 효과적이었을지라도, 소량의 비(대체로 10mm 미만)는 차가운 대기를 동반하였다. 한랭한 대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밤 최저기온은 영하 10°C 이상으로 하락하지 않았으며 겨울 작물을 위협하지도 않았다. 한편, 계절적으로 따뜻한 날씨(평년대비 9°C 이상 높음)는 동부 유럽지역으로 확장되었고, 특히 발칸 지역이 그러했다. 따라서 겨울 작물의 견고성이 줄어들었으며, 스노우 커버는 녹았고, 남동부 유럽지역에서는 가장 따뜻한 지역의 경우 이른 녹화현상을 촉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당하거나 많은 양의 비(10-75mm)는 발칸지역에서 남부와 동부 폴란드에 이르기까지 봄철 생장에 필요한 적정하거나 충분한 수분 보유량을 유지시켜 주었다.

■ 구소련(서부): 계절에 맞지 않는 따뜻한 날씨가 서부와 남부 지역에 발생하였으나, 대부분의 동부 작물 지역에서는 추운 날씨와 스노우 커버가 남아 있었다. 우크라이나의 주요 밀 재배지역에서는 서부와 남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더욱 따뜻한 날씨(평년대비 3-7°C가 높음)가 지역의 보호적 스노우 커버를 감소시켰지만 동면중인 가을밀의 동해에 따른 피해의 위험은 최소화 시켰다. 또한, 낮 최고 기온은 남서부 러시아지역에서는 10°C 이상 높아져 가을밀의 견고성을 감소시키고 일부 작물의 초기 녹화를 촉진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반대로, 중부 러시아 지역에서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은 기온을 기록하였으며, 눈 속에서 겨울 작물들의 동면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와 북서부 작물 재배지역의 경우 총 강수량은 10-25mm를 기록하였다.

■ 호주: 남부 퀸즐랜드와 북부 뉴사우스웨일스에서는 많은 지역에서 비(10-50 mm,

국지적으로 더 많은)가 내려, 재생산이 가까웠거나 진입한 여름작물의 수확전망을 촉진하였다. 비는 국지적으로 적당히 내려 수수와 같이 건조한 땅에서 자라고 있던 작물에게 충분한 토양 수분을 제공해 주었으며, 면화처럼 관개가 필요한 작물에게는 보충이 필요한 수분 요구량을 완화시켰다. 동부 호주지역에서의 기온은 평년대비 평균과 비슷하게 유지되었으며, 작물의 생육에 선호되는 조건이었다.

■ 아르헨티나: 넓은 지역에 국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려 대체로 여름 곡물, 유채, 면화의 수확 전망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수량은 매우 가변적이었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5-50mm를 기록하였다. 주간 기온은 평년대비 평균 1°C 이내의 편차를 보였으며, 낮 최고 기온은 Buenos

Aires와 Cordoba 인근지역, Santa Fe, Entre Rios의 경우 30°C 초반을 기록하였다. La Pampa 지역에서는 한때 30°C 후반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아르헨티나 주요 농업생산지역의 경우 최고 기온이 며칠간 30°C 후반에 달하였으며, 북부 Cordoba와 Santiago del Estero의 경우 40°C에 육박하였다. 대체로 작물 생산전망은 대체로 긍정적이었고, 초기에 파종된 옥수수는 이미 고온에 따른 스트레스 없이 재생산에 진입하였으며, 가장 따뜻한 날들로 인해 작물들은 수분 보유는 지속되었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1월 22일 기준 옥수수 파종률은 92%p로 전년과 동등한 수준이었으며, 대두 파종률은 99%p에 달해 실질적으로 거의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 브라질: 12월 말부터 브라질 동부 대두 재배지역에 영향을 끼쳤던 적절하지 못한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는 많이 필요했던 비가 내림에 따라 끝이 났다. 총 강수량은 편차가 있지만, 주요 대두 재배지역과 옥수수 지배지역인 Goias, 서부 Minas Gerais, Piaui의 경우 적어도 25mm의 비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탕수수와 커피 재배지역인 Sao Paulo와 남부 Minas Gerais 지역에서도 비슷한 강수량이 기록되었으며, 사탕수수와 커피의 수분을 충족시켰다. 남동부 주요 작물 재배지역의 주간 기온은 평년대비 평균 3°C 이상 높았고, 비가 내리기 이전 낮 최고기온은 30°C 중·후반에 달했다. 브라질 남부(남부 Parana에서 북부 Rio Grande do Sul )에서는 더 많은 양의 비(50mm 이상)가 내려, 생육에서 충전단계에 진입한 옥수수와 대두에 필요한 충분한 수분을 유지시켰다. 많은 양의 비가 내린 북부 농업 지역인 Mato Grosso의 경우 일부 지역의 강수량이 100mm 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남부 Mato Grosso 와 북부 Parana의 경우에는 소량에서 적당량의 비(10-50mm)가 내렸고, 대두와 옥수수의 충전과 성숙에 필요한 수분을 충족시켰다. Parana와 중서부 지역의 주간 평균 기온은 비가 내리기 전, 주 초반 낮 최고기온이 30°C에 달하였다.